

아시아나항공 매각 10개월만에 '노딜'

현산, 채권단 파격 제안 끝내 거부...다음주 계약해지 통보 채권단 '플랜B' 가동 전망...금호 그룹 재건 계획에도 차질

10개월여를 끌어온 아시아나항공 인수 가 사실상 무산됐다. 채권단이 던진 '최종안' 제안에도 HDC현대산업개발이 '12주 재실사'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은 조만간 계약 해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산은 전날 이메 일을 통해 12주간의 재실사를 요구하는 입장을 산업은행 측에 전달했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지난해 12월 계약 당시와 상황이 크게 달라진 만큼 재실사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이동걸 산은 회장과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지난달 26일 아시아나 인수문제를 놓고 최종 담판을 벌인 뒤 현산은 인수 조건을 놓고 고심을 거듭해왔다.

이 회장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인수 가격 재조정 등을 포함해 현산의 인수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한 영구채-전환사채를 자본으로 유지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채권단이 이미 거절한 바 있는 아시아나항공 재실사 카드를 현산이 다시 꺼내 들었다는 점에서 채권단은 인수 의지에 진정성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현산이 이메일로 최종 답을 보냈다고 보고 있다"며 "추가 역선이 더 나오지 않는 이상 방향은 잡힌 것 같다"고 말했다.

계약 무산이 가정사실화하며 추후 계약

해지 책임을 묻는 소송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산은 이번에도 재실사만 요구하며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계약금 반환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현산과의 계약 당사자인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은 정부와 채권단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주중 계약해지 통보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음주 초로 예상되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이후 계약해지 통보가 이뤄질 것이라 전망도 있다.

앞서 현산은 작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뒤 같은 해 12월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과 각각 주식매매계약(SPA)과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애초 아시아나항공 최대주인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구주) 6868만8063주(지분율 30.77%)를 3228억원에 매입하고,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할

2조1772억원 규모의 신주 제3차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산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에 부채와 차입금이 급증하고 당기순손실이 큰 폭으로 증가한 점 등을 들어 재실사를 요구해왔다. 채권단은 이 같은 요구를 단지 거래 종결을 지연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하며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거래가 최종 무산될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채권단 관리 체제로 넘어가고 정부는 아시아나항공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금액과 방식 등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며, 기간 기금이 지원되면 아시아나항공은 6년 만에 다시 채권단 관리체제로 들어간다.

채권단은 기간기금 투입으로 급한 불은 끈 뒤 내년 제매각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항공업황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대체 인수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기용 기자 pboxer@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95.90 (+31.53) ↓ 금리(국고채 3년) 0.919 (-0.004)
 ↑ 코스닥 874.13 (+7.39) ↑ 환율(USD) 1188.30 (+2.90)

송기봉 신임 광주지방국세청장 임명

국세청 차장엔 문희철

신임 광주지방국세청장에 송기봉(55·사진)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이 임명됐다.

국세청은 3일 국세청 차장과 서울청·부산청·광주청 등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전북 고향 출신인 송 신임 광주청장은 한양공고와 성균관대 경제학과, 연세대 경제대학원을 졸업하고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영주세무서장, 국세청 원천세과장, 대변인, 서울청 조사1국 1과장, 중부청 정세승무과장, 중부청 조사3과장 등 주요 직위를 지냈다.

송 청장은 IT 기술을 활용한 성실납세 지원체계 고도화와 국세업무 모바일 서비스 전면 확대, 불공정 탈세 행위에 대한 조사역량 집중으로 세법집행 확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세청 서열 2위인 신임 차장에는 문희철(55) 서울청 성실납세지원 국장이 임명됐다. 고향 출신인 문 신임 차장은 군산제일고와 서울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행정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제주세무서장, 서울청 징세과장,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감사담당관, 광주청 조사2과장, 광주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광주청 조사1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밖에 서울청에는 임광현 조사국장, 부산청에는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국세청 조사국장에는 노정석 국제조세관리관이 각각 임명됐다.

한편 박석현 현 광주지방국세청장은 4일 오전 퇴임식을 갖고 명예퇴직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전통주, 편의점서 만나세요 aT "GS25 앱으로 주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편의점 GS25와 손잡고 전국 1만3000개 점포에서 전통주 판매에 나선다.

aT는 우리 농산물로 만든 전통주의 판로확대와 소비활성화를 위해 GS25 스마트오더와 협력해 '우리술 담다'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달부터 GS25의 스마트오더 앱인 '더팝'을 통해 전국 46개의 우수 양조장에서 빚은 100여 가지 전통주를 구입할 수 있다. 고급 유리잔 세트가 담긴 특별 패키지는 2000개 한정 판매한다.

소비자들은 전국 1만3000개 GS25 편의점 중 원하는 점포에서 편리하게 전통주를 수령할 수 있다.

aT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홈술, 혼술 경향에 맞춰 연말까지 '우리술 담다'라는 전통주 소비활성화 캠페인을 펼칠 방침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은행 전남본부 수해성금 2억원 기탁 NH농협은행 전남본부(본부장 서욱원·왼쪽)와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오른쪽)는 최근 전남도에 구레·곡성 등 집중호우 피해 극복을 위한 2억원 상당 물품을 기탁했다. <농협은행 전남본부 제공>

한전 "전기·소금 동시 생산"

무안에 염전용 태양광발전 시제품 설치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이 염전에서 전기와 소금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무안에 시제품을 설치했다.

한전 측은 이번 염전용 태양광 발전을

전남도와 상생협력하는 그린뉴딜 사업으로 키울 방침이다.

한전은 녹색에너지연구원, SM소프트웨어와 공동으로 100kW급 염전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수심 5cm 내외의 염전 증발지 바닥에 수중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소금과 전력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국내 염전 중 85%는 전남에 밀집해있다. 연구진은 2018년 3월부터 무안에 염전 태양광 6kW 설비를 시범 설치한 뒤 이번엔 100kW급으로 용량을 늘렸다.

한전은 염전에 태양광 설치를 위해 수입에 잘 견디는 태양광 모듈을 설계하고, 태양광-염전 통합운영시스템을 개발했다.

여름철에는 염수(소금물)에 의한 냉각으로 일반 지상 태양광과 비교해 발전량이 5% 개선됐고, 태양광 모듈에서 발생하는 복사열로 염수 증발 시간도 줄어서 소금 생산량도 늘었다고 한전 측은 밝혔다.

국내 염전 증발지 40km²에 이 기술을 적용하면 최대 4GW 발전부지가 확보된다.

한전 관계자는 "이 기술은 추가적인 부지 없이 염전에서 태양광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광주리본택시' 카카오 대항마 될까

택시 플랫폼 14일 출시

전국 2600만 회원을 보유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항하기 위한 '광주형 택시 플랫폼'이 오는 14일 정식 출시된다.

이는 택시 사업자 측이 자체적으로 모바일 앱을 만든 전국 첫 사례이다.

3일 광주시 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향토 모빌리티'를 내건 모바일 앱 서비스 '광주리본택시'가 오는 14일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조합 측은 올해 6월 모빌리티 사업자 '리본택시'를 공동 사업자로 선정하고 지난 달까지 광주지역 택시전용 모바일 앱을 개발해왔다.

광주지역 택시법인이 76개 가운데 49개사 2000여 대 차량이 이 모바일 앱을 이용할 계획이다. 광주지역에서는 개인택시 4800대를 포함해 8300대 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조합 측은 직접 모바일 앱을 만든 이유는 그동안 카카오모빌리티가 가져가는 3%대 '릴 수수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다.

조합은 그동안 '카카오T'의 가맹택시 사업 방식은 장거리 등 유리한 점은 가맹택시에 몰아주고 3%대 수수료는 가져가겠다는 것"이라며 카카오 가맹서비스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광주리본택시'는 교통 서비스의 진절과 혁신을 이어주는 리본이 되겠다는 취지로 이름 지어졌다.

리본택시는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7개 외국어 지원과 ▲여성 승객을 위한 '조용한 택시' ▲반려동물 동반 서비스 ▲승차자 정보를 지인에 전송하는 '안심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조합 측은 앞으로 자체 사업비로 모바일 서비스 수수료를 충당하며 정관 변경 등을 통해 운영방식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상생카드 등 지역화폐 취급 여부도 광주시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자동배치를 기반으로 한 '카카오 T'블루' 가맹사업에 참여한 회사는 76개사 가운데 20개사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상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QR코드를 참고하세요

한국 신협은 117개국 2400조 자산 규모의 세계신협연맹의 아시아 회장국으로서 전 세계 빈곤 퇴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알고계시나요?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 고금리 대출을 3%~8.15%로 대환해 드리는 815 대출
- 3~4개월 50만 원 이상 저축한 저축금 무리 없이 대출
- 저축금에 따라 상환하는 저축연계대출(부채 상환) 서비스
- 저당업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돕는 지원센터 설치
- 3~4개월 50만 원 이상 저축한 저축금 무리 없이 대출
- 50세 이상 조합원(소상공인)이 할 수 있는 대출

평생 어부바 신협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사채 정리 운동 실시 기간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